

65세 이상 농가인구 40% 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예측’

농업생산액 전년대비 0.8% 증가

채소 생산량 회복...가격 하락 안정

쇠고기·돼지고기값 하락

열대과일 수입 늘고 국내과일 소비 정체



2017년 농가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한 247만명이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해보다 0.9%로 증가한 4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18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농업전망대회’에서 이처럼 예측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 질서와 농식품 시장의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한국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 이날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은 오는 2월 7일 전북도청에서, 영남권은 오는 2월 9일 경북도청에서 각각 열린다.

농업전망대회를 통해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하여 농업생산액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며,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3조2770억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4조3420억 원으로 예측된다. 이중 곡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1.4%(쌀 생산액은 1.2%) 증가, 과실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 급등했던 채소는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대비 가격하락 예상되어 5.2% 생산액 감소가 전망된다.

또 축산업 생산액은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오리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9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배합사료

가격은 하락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0.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증가로 호당 농가소득 전년대비 0.5%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생산액 증가폭(0.8%)이 농업경영비 증가폭(0.3%)보다 커서 2017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8%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1%, 농가호수는 1.4%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247만 명으로,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06만 호로 추정된다. 농가인구의 과소화 및 고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가격은 수확기 가격(12만9807원·80kg)대비 4.0% 상승한 13만5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76만2000ha, 평년단수(522kg·10a) 가정했을 때 2018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397만9000t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5.0% 하락한 1만7230원(kg),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전년대비 3.3% 하락한 4450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은 전년대비 증가하는 반면, 국내과일 소비는 정체될 전망이다. 사과와 복숭아는 재배면적이 각각 1%, 5% 증가하고 배, 포도, 감귤, 단감은 각각 2%, 11%, 1%,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여수 수산시장 복구 성금 5천만원

2500만원 전력설비 지원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5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설 대목을 앞두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한전은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냉동창고 25개 및 상인회 사무실에 임시전력을 공급하고, 100kW 규모 비상발전차를 동원하여 현장복구용 옥내 조명시설 등 2500만원 규모의 전력설비를 지원했다.

또 공기업 유일의 119 재난구조단 50여명을 현장에 급파하여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철거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피해상인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지원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임직원이 모금한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화재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여수시장 상가회 측에 성금 5천만원도 전달했다. 한전은 향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전기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경주지진 피해, 울산태풍 피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재난 발생 때마다 선제적으로 복구성금 기탁과 자원 봉사자를 파견하기도 했다.

조환익 사장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화재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작은 보탬이나마 여수시장 상인들께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재난피해 극복을 위해 피해상인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등 신속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e스포츠 최고 인기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실태조사보고서

지난해 시청 1위 56.8%

스타크래프트·서든어택 순

대회 매출 723억...세계 시장 10%

국내 e스포츠 시청자들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시청한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2(48.8%), 서든어택(25.8%)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직무대행 강만석)은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16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접적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방송·스트리밍·포털·온오프라인 매체 등 미디어 부문 매출 459억5000만원 ▲구단 운영 예산 부문 매출 221억 원 ▲대회 부문 매출 42억4500만원 등 총 723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 세계 시장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 조사의 대회부문 매출 규모 추정결과가 과대한 경향이 있어 올해 보고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개최됐던 e스포츠 대회 및 각 대회별 총상금 규모를 전수 조사해 재추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2015년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규모는 2014년 대비 약 20%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대비 ▲미디어 부문 매출은 9.1% ▲구단 운영 예산 부문 매출은 50.6% ▲대회 부문 매출은 6.2% 각각 증가했다.

e스포츠 산업규모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리그오브레전드-이터눔 녹턴

산출한 e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41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54억 원으로 나타났다.

e스포츠 시청자들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시청한 종목(복수응답)은 ▲리그오브레전드(56.8%) ▲스타크래프트2(48.8%) ▲서든어택(25.8%) 순이었다.

시청자들이 e스포츠를 시청할 때 주로 사용한 매체는 ▲케이블 TV(41.4%) ▲컴퓨터 및 노트북(39.6%) ▲모바일 및 태블릿(19.0%)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 주요 프로그래밍단은 모두 14개로, 여기에 총 224명의 프로그래머가 소속돼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는 “‘오버워치’와 같은 신규 리그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 등 신규 e스포츠 리그 개최자의 출현으로 향후 활발한 e스포츠 리그 진행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6년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e스포츠 실태조사 결과 이외에 글로벌 e스포츠 현황 및 규모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도 수록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 농식품으로 설 준비 하세요”

27일까지 서울 모란역 ‘농식품 찬들마루’서 특판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코레일(사장 홍순만), 코레일유통(사장 유재복)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서울시 모란역사 안에 농공상용합형 우수제품 전용 판매·홍보관인 ‘농식품 찬들마루’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장한 모란역 ‘농식품 찬들마루’의 매장활성화 및 조기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은 농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선정·육성하는 기업이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양질의 우수 전통식품, 유기농 식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전용판매관으로 알려지면서, 개장 이후 꾸준한 판매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합평 한우로 만든 ‘휘둘찬푸드’의 합평전지한우곰탕 ▲‘한국로하스식품’의 3번, 9번 구워 만든 선운산죽엽 ▲‘산막이농산’의 치매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100% 국산 울금 분말, 울금환 ▲설 차례상에 ‘참그린 과일세트’ 등 약 130여개 제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20%에서 30% 이상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골목사 김선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안!

세속에 물든 사람들, 타락한 도시, 위기의 교회를 향해 띄우는 37가지 주옥같은 삶과 영성의 메시지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죄악’을 펴낸 뒤 스스로 찾아간 두메산골 교회
8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침묵 가운데 써내려간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

지난 봄 손녀딸이 열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어 준 게 아직도 색이 바래지 않고 곱게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이거 영감님 꼬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물들인 거 아니려?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안 빠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다.....”
승합차에 타고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배품을 쏟아내며 들쭉거립니다. _ 본문 25쪽에서

우리들의 작은 천국



4·6변형판 | 272쪽 | 글·사진 김선주 | 값 13,000원 CBS북스